

간호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과 성적자기주장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권순조[†]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024년 3월 5일 접수: 2024년 4월 11일 수정: 2024년 4월 15일 채택)

The Influences of Gender Sensitivity and Sexual Assertiveness on Dating Violence of Nursing Students

Soon Jo Kwo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eimyung College University

(Received March 5, 2024; Revised April 11, 2024; Accepted April 15, 2024)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기주장, 데이트폭력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66명이며 자가 보고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t-test, ANOVA,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인지감수성과 성적자기주장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172, p<.001$), 성인지감수성과 데이트폭력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105, p<.005$), 성적자기주장과 데이트폭력간에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24, p<.05$). 간호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연령($\beta=.184$), 학년($\beta=.145$)이었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설명력은 7.1%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이 성인지감수성과 성적자기주장을 높이고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성인지, 감수성, 자기주장, 데이트폭력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ensitivity, sexual assertiveness, and dating violence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effect dating violence. The 366 nursing students who were the subject of the study were satisfied,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earch results show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ensitivity and sexual assertiveness ($r=.172, p<.001$), an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ensitivity and dating violence ($r=-.105, p<.005$), an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as also found between sexual assertiveness and dating violence ($r=-.024, p<.05$). The influencing factors for dating violence

[†]Corresponding author

(E-mail: sjkwon@kmcu.ac.kr)

* This article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Keimyung College University.

were age ($\beta=.184$) and grade ($\beta=.145$), and the explanatory power for dating violence was found to be 7.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o prevent dating violence among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s, Gender, Sensitivity, Assertiveness, Dat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2년 여성가족부 통계자료를 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19,940건, 2020년 18,945건이다. 데이트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수는 2020년 8,982명, 2021년 10,554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데이트폭력 범죄자 중 20대 비율은 2016년 31.8%에서 2021년 36.3%로 5년 사이 4.5% 증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

데이트폭력은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젊은 연령층은 의사소통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위협, 모욕, 놀림, 희롱, 학대 등의 행위를 경험하고 있다[2].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파트너에게 고통을 주고 신체적 및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몸짓과 행동, 성적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스토킹을 포함한 비혼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3]. 또한, 데이트 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심리적 손상을 포함한다[4]. 20대는 대학생 시기인 성인기의 초기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독립하며,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교체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는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성인 초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5]. 미국 대학생의 20~30%에서도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대학생은 대학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캠퍼스 문화, 성, 데이트 등에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트폭력의 경험은 신체적, 정서적 및 성적인 학대로 인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6].

성인지감수성은 성인지와 관련되는 이슈를 감지하는 능력으로 성 간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

부터 성차별과 성 불평등까지 광범위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또한, 형식적인 성평등이 아닌 실제적인 성평등에 대한 소통의 개념을 의미한다[7]. 그러므로, 성인 초기인 대학생은 대학 생활 동안 올바른 성정체성과 건전한 사회성을 확립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8].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대상자는 데이트폭력 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여 위험 상황에 지각할 수 있고, 성인지감수성이 낮은 대상자는 성평등 인식이 낮고 데이트폭력 피해조차 인지하기 어렵다[8]. 아직 우리 사회는 성인 초기인 대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와 여성 관련 정책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으며, 아직 성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에 대한 남녀 간 인식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9]. 양성평등 감수성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데이트성폭력에 대한 연구[10], 성태도, 성지식, 사회성, 자아존중감, 심리·사회적 성숙도에 관한 연구[11,12,13,14]가 다수지만, 성인지감수성이 데이트폭력과 관련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성적자기주장은 성적인 경험에 적용되는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이며[15],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자신감, 사회적으로 떳떳함을 추구하도록 자신의 성적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16]. 또한, 성적자기주장은 원치 않은 성 접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거부 의사를 표현하여 자신의 성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17].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적인 상황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여 성적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성적자기주장은 꼭 필요한 행동 전략이다[18].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성적자기주장이 낮을수록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19],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적자기주장과 데이트폭력은 반비례하였다[10].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은 성인지감수성과 성적자기주장과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어 미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할 때 간호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지각수성, 성적자기주장 및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지각수성과 성적자기주장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성인지각수성, 성적자기주장 및 데이트폭력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각수성, 성적자기주장 및 데이트폭력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성인지각수성, 성적자기주장 및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각수성과 성적자기주장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D시 일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년부터 4학년까지 남녀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본 연구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요인 8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160명이 요구되었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최종 응답한 366명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성인지각수성

성인지각수성은 Lee[7]가 개발한 젠더감수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하위 영역은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7문항, 자기성찰 8문항, 비폭력 7문항,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 문항에 대해 역환산하여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31점 ~ 1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지각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에서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5로 나타났다.

2.3.2. 성적자기주장

Patricia 등 [21]의 도구를 Choi [17]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하위 영역은 원치 않은 성 접촉 시의 거절 관련 6개 문항과 성 접촉시에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콘돔 사용 관련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절 요인에는 거절 3문항과 거절 못함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신과 성병 예방 요인에는 성교 때 콘돔 사용하는 3문항과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절 못 하는 문항 점수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문항 점수를 역문항 처리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12점 ~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이 성적자기주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에서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1로 나타났다.

2.3.3. 데이트폭력

Straus [22]와 Shephard 등[23]이 개발한 도구를 Sun[2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총 15문항으로 하위 영역은 신체적 폭력 5문항과 정서적 폭력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없음' 1점부터 '매우 자주' 5점까지 Likert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15점 ~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행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7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9로 나타났다.

2.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22년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 시행하였다. 연구 윤리 보호와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을 중단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설문지는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면 설문 URI에 접속하여 응답하도록 설명하였다. 설문이 종료된 후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인지각수성, 성적자기주장 및 데이트폭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각수성, 성적자기주장, 데이트폭력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성인지각수성, 성적자기주장 및 데이트폭력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 계수(Person Correlation)를 시행하고,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으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각수성, 성적자기주장, 데이트폭력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학생 310명(84.7%), 남학생 56명(15.3%), 평균연령 24.25 ± 2.24명으로 19~22세가 244명(66.7%)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2학년 127명(34.7%)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성 교체 기간은 3개월 미만 109명(29.8%)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각수성은 연령($t=7.184, p<.001$), 학년($t=7.964, p<.001$), 이성 교체 기간($t=3.805,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적자기주장은 학년($t=5.075, p<.01$), 데이트폭력은 나이($t=6.584, p<.001$)와 학년($t=8.33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3.2. 성인지각수성, 성적자기주장, 데이트폭력 정도

대상자의 성인지각수성은 평균 3.28 ± 0.39 점이었으며, 하위변수로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3.38 ± 0.63 점, 자기성찰 3.01 ± 0.49 점, 비폭력

3.21 ± 0.54 점,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 3.50 ± 0.60 점으로 나타났다. 성적자기주장은 3.98 ± 0.30 점으로 하위변수는 원치 않은 성적접촉 거절 요인 4.42 ± 0.48 점, 임신과 성병 예방 요인 3.54 ± 0.32 점이었으며, 데이트폭력은 1.25 ± 0.20 점이며 하위변수로 정서 폭력은 1.37 ± 0.29 점, 신체 폭력 1.02 ± 0.07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성인지각수성, 성적자기주장,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

성인지각수성과 성적자기주장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172, p<.001$), 성인지각수성과 데이트폭력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105, p<.005$). 성적자기주장과 데이트폭력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24, p<.05$)(Table 3).

3.4.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학년과 데이트폭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성인지각수성과 성적자기주장을 예측변수에 포함했다. 그리고 연령, 학년은 더미변수 처리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정성, 잔차 및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다중공정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49~.90으로 기준 .10 이상이었고, 분산 팽창인자도 1.11~2.04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정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Dubin-watson 값이 1.824로 오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어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였고,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가정도 만족하여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데이트폭력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4.536, p<.000$), 간호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beta=.184$)였으며, 다음으로 학년($\beta=.145$) 순이었다. 이들 변인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설명력은 7.1%였다(Table 4).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각수성, 성적자기주장 및 데이트폭력의 정도와 관계를 알아보고,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의 차이는 연령과 학년에서 나타났으며, 그중 학년은 성인지각수성과 성적자기주장과도 차이가

Table 1. Difference of Gender Sensitivity, Sexual Assertiveness and Dating Violence

(n=366)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Sensitivity		Sexual Assertiveness		Dating Violence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Female	310(84.7)	3.30±0.38	2.349 (0.126)	3.98±0.30	0.204 (0.652)	1.25±0.20	0.123 (0.726)
	Male	56(15.3)	3.18±0.42		3.97±0.28		1.25±0.20	
Age	19-22 ^a	244(66.7)	3.31±0.38	7.184 (p<.001) d<a,c	3.98±0.32	0.519 (0.669)	1.23±0.19	6.584 (p<.001) a,b,c<d
	23-25 ^b	81(22.1)	3.19±0.35		3.99±0.24		1.25±0.18	
	26-30 ^c	24(6.6)	3.41±0.40		4.02±0.23		1.29±0.15	
	>31 ^d	17(4.6)	2.96±0.38		3.91±0.30		1.43±0.23	
Grade	1st ^a	45(12.3)	3.41±0.42	7.964 (p<.001) a,c>d	4.14±0.24	5.075 (p<.01) a>b,c,d	1.18±0.15	8.335 (p<.001) d>a,b,c
	2nd ^b	127(34.7)	3.24±0.38		3.95±0.37		1.25±0.18	
	3rd ^c	80(21.9)	3.41±0.36		3.96±0.21		1.20±0.17	
	4th ^d	114(31.1)	3.18±0.37		3.98±0.30		1.32±0.23	
Dating Period	<3M ^a	109(29.8)	3.38±0.37	3.805 (p<.01) d<a	3.98±0.31	0.054 (0.995)	1.22±0.20	1.208 (0.307)
	3~6M ^b	79(21.6)	3.29±0.38		3.99±0.31		1.25±0.17	
	7~12M ^c	60(16.4)	3.20±0.38		3.97±0.29		1.29±0.24	
	1~2Y ^d	79(21.6)	3.24±0.40		3.97±0.28		1.24±0.17	

M: months, Y:years

Table 2. The Comparison of Gender Sensitivity, Sexual Assertiveness and Dating Violence

(n=366)

Variables	Range	M±SD
Gender Sensitivity	2.13-4.48	3.28±0.39
Sexual Indentity	1.29-5.00	3.38±0.63
Self-Reflection	1.38-5.00	3.01±0.49
Non-Violence	1.57-4.57	3.21±0.54
Openness to Gender Roles	1.78-4.78	3.50±0.60
Sexual Assertiveness	2.75-4.50	3.98±0.30
Unwanted Sexual Contact	2.67-5.00	4.42±0.48
Prevention of Pregnancy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2.50-4.33	3.54±0.32
Dating Violence	1.00-2.13	1.25±0.20
Emotional Violence	1.00-2.70	1.37±0.29
Physical Violence	1.00-1.80	1.02±0.07

Table 3. Correlation among Gender Sensitivity, Sexual Assertiveness and Dating Violence

(n=366)

Variables	Gender Sensitivity	Sexual Assertiveness	Dating Violence
	r(p)		
Gender Sensitivity	1		
Sexual Assertiveness	.172(<.001)	1	
Dating Violence	-.105(<.044)	-.118(<.024)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Dating Violence

(n=366)

Variables	B	SE	β	t	p	Adj R ²	F(p)
(constant)	1.446	.160		9.052	.000	.071	5.001 (<.001)
Age	.045	.013	.184	3.422	.001		
Grade	.028	.010	.145	2.807	.005		
Gender Sensitivity	-.033	.027	-.066	-1.225	.221		
Sexual Assertiveness	-.062	.034	-.094	-1.833	.068		

있었다. 특히 연령과 학년이 낮은 경우 성인지각수성과 성적자기주장이 높았는데 이는 데이트폭력 행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Joo 등 [13]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성인지각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Woo와 Yoo[14]의 연구와 Yang[11]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학년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본 연구와 다른 변수인 성지식, 성태도, 성역할 등을 측정하였으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결과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각수성과의 차이에서 이성교제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이성교제 기간이 짧을 경우 성인지각수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성교제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인지각수성은 3.28점으로 나타났다. Yang 등[11]의 연구 결과 2.99점 보다 높고, Woo와 Yoo[14]의 연구 3.19점에서 보다 높았지만, Lee와 Lee[10]의 연구 결과 3.40점보다 낮은 것은 Lee와 Lee [10]의 연구에서 서울, 경기, 전남 지역 4개 학교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을 하지 않고 일 대학만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추후 대상자 영역을 확대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성적자기주장은 3.98점으로 나타났다. Koo와 Oh[25]의 연구 3.29점 보다 높고, Kang과 Kim[5]의 3.40점 보다 높지만, Woo와 Yoo[14]의 4.45점 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앞으로 일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의 대상자를 통한 반복연구를 통해 비교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데이트폭력은 1.25점으로 나타났다. Koo와 Oh[25]의 연구 1.86점, Hong[26]의 연구 1.67점, Lee와 Lee[10]의 연구 1.30점 보다 낮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Lee와 Lee[10]의 연구와 같이 데이트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중점이 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의 범위를 일반화한 부분이 있어 오는 다른 결과일 수 있으므로, 추후 데이트폭력의 경험과 인식, 행위, 성폭력 등으로 중점을 두어 후속 연구를 통해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인지각수성, 성적자기주장 및 데이트폭력과의 관계에서 성인지각수성은 성적자기주장과 데이트폭력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성인지각수성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Lee와 Lee[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성인지각수성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나, Lee와 Lee[10]의 연구결과에서는 성인지각수성과 데이트성폭력 피해 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 성인지각수성과 데이트폭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적자기주장과 데이트폭력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보였다. 이는 Lee와 Lee[10]의 연구, Koo와 Oh[25]의 연구, Kang과 Kim[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성과의 교제 기간이 길어지고 친밀할수록 데이트폭력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평소 성적자기주장을 하는 방법이나 습관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데이트폭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높은 성인지각수성과 성적자기주장은 데이트폭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대학 신입생 때부터 비교과 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과 학년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설명력은 7.1%이었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없지만,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로 의료현장에서 실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사정하고 간호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성인지각수성이 낮고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낮으면 간호업무의 소임을 수행키 어렵게 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그동안 입시 위주 교육에 매달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각수성, 성적자기주장, 데이트폭력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연령과 학년이 낮은 신입생 때부터 대학의 비교과프로그램이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 이외에 타전공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통해 대학에 맞는 데이트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지각수성, 성적자기주장, 데이트폭력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성인지각수성과 성적자기주장은 데이트폭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연령과 학년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데이트폭력을 7.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 대학교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설문지에서 성폭력 관련 피해에 대한 부분과 최근 증가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첫째, 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 경험에 대해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하며 둘째, 간호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ating Violence Reference Information. Violence Against Women 2022, From: <https://www.mogef.go.kr>. (accessed Dec., 15, 2023)
2. E. B. Corroto, A. I. Cuenca, J. A. L. Aguilera, E. S. Salas, D. P. Carrascosa, S. R. Cañamero, N. M. Espinosa, J. M. Torres, "Dating violence, violence in social networks, anxiety and depression in nursing degree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79, No.4 pp. 1-13, (2021).
3.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ating Violence Reference Information. From: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intimatepartnerviolence/1605/> 2022. (accessed Dec., 17, 2023)
4. Korea Dating Violence Institute. Dating Violence Reference Information, http://www.stoptrauma.co.kr/s2/s2_1.php (accessed Jan., 4, 2024)
5. J. Y. Kang, S. B. Kim, "Impacts of College Students' Gender Role Stereotypes on

-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The Mediation Effect of Sexual Assertiveness”, *Journal of Education Science*, Vol.23, No.1 pp. 79-103, (2021).
6. J. S. Wong, J. Bouchard, C. Lee, “The Effectiveness of College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A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Vol.24, No.2 pp. 684-701, (2023).
 7. J. Y. Lee, “A Study on Developing Gender Sensitivity Measur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1).
 8. S. H. Kim, G. H. Leem, H. J. Sung, N. K. Seong, S. H. Kim, K. S. Kim, S. J. Lee, “The Influ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Gender Sensitivity on the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in Positions of Power Imbalance”, *Korean Police Studies*, Vol.18, No.4 pp. 3-36, (2019).
 9. B. K. Kim, H. K. Kim, A. Y. Lee, T. W. Kim, J. H. Park, D. U. Kim, “The effect of equality of both sexes and self-esteem on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 Technology*, Vol.35, No.3 pp. 768-777, (2018).
 10. D. S. Lee, M. K. Lee, “The Influences of Gender Sensitivity and Sexual Assertiveness on Dating Sexual Violence Experience among Fe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26, No.2 pp. 67-75, (2022).
 11. Y. M. Yang, M. O. Cho, K. H. Baek, “The Effects of Sexual Attitude and Sexual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6 pp. 55-63, (2021).
 12. K. S. Kim, Y. A. Kim, “The Effects of Psychosocial Maturity and Sexual Attitude, on Gender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Vol.6, No.2 pp. 345-353, (2022).
 13. K. S. JOO, J. P. Lee, K. M.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ity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6 pp. 213-229, (2020).
 14. C. H. Woo, S. Y. Yoo, “The Effects of the Gender Sensitivity, the Gender Role Confli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22, No.3 pp. 41-54, (2021).
 15. S. Couture, M. Fernet, M. Hebert, R. Guyon, S. Levesque, A. Paradis, “I Just Want to Feel Good Without Making You Feel Bad”: Sexual Assertiveness Negotiation in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Arch Sex Behav*, Vol.52, No.7 pp. 3063-3079, (2023).
 16. Y. H. Kim, S. T. Moon, H. S. Kang, “Factors Influencing on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19, No.3 pp. 166-175, (2013).
 17. M. H. Choi,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5).
 18. H. J. Kim, “Female adolescents sexual assertiveness types: Q 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21, No.4 pp. 272-283, (2015).
 19. E. S. Lee, H. S. Kang,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gender role stereotype,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 in dating”,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0, No.1 pp. 48-56, (2014).
 20. L. Shana,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s’ perceptions of the revictimization of rape victi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27, No.2 pp. 287-315, (2012).
 21. J. A. Jeong, H. J. Jeon, S. M. Che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Vol.10, No.2 pp. 279-296, (2018).
 22. S. Y. Kim, “The Influence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on Dating violence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2010).

23. C. H. Lee, J. S. Shin, "An Analysis on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and Social Support on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3 pp. 27-57, (2015).
24. M. K. Su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and Gender sensitivity on Dating Violence of College Student, Doctoral dissertation, Pai Chai University, (2020).
25. S. M. Koo, E. Y. Oh, "Effect of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on Sexual Assertiveness : Mediating Effect of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12 pp. 158-167, (2021).
26. S. H. Hong, "The Relationships between Violence Experience, Self-esteem, and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5 pp. 197-208, (2021).